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공 광주본부, 수출멘토링 서비스 본격 추진...수출 노하우 전수 · 해외진출 도모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30일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수출지원단에 '수출멘토링 서비스 멘토단'을 위촉하고 현장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출멘토링 서비스는 수출 경험이 풍부한 멘토기업이 중심이 돼 수출타깃기업(멘티)에게 다양한 현장경험을 종합적으로 전수한다. 업종별 1(멘토):3(멘티):1(전문위원) 소규모 그룹 매칭을 통해 수출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수출타깃기업이 수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수출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광주권 산업단지에 수출 활력을 증폭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 애로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들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광주은행

◆광주은행, 동구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마련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 동구청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박종춘 광주은행 부행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금융사기의 다양한 유형 및 대처 방법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디지털

금융생활 적응에 큰 도움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젊은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환경이 낯선 시니어층은 디지털 금융 및 문화에 소외되기 쉽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안 첫 관문 통과…지구단위 계획 입안



광주 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백화점 확장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안이 첫 번째 행정절차를 통과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30일 자문회의를 열어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 계획 주민 제안) 입안에 조건부 동의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월 회의에서 주변 교통 대책 등을 요구했으며 신세계 측은 당시 요구 사항을 반영해 재자문 끝에

입안 결정을 받았다.

신세계에서 설치할 지하차도의 기부채납, 기존 육교 철거, 응급·화재 등 비상 차량 동선을 고려한 도로 확장, 금호월드 포함 주변 민원 적극 해소 등 모두 8개 조건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주민 의견 청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건들이 이행됐는지 판단해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 728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업계 최초 레이싱 인재육성 프로그램 실시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가 업계 최초로 모터스포츠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금호 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호 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젊은 레이싱 드라이버 유망주들이 프로선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육성 프로그램이다.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금호 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세계 수준의 레이서를 희망하는, 가능성 있는, 젊은 인재의 등용문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금호타이어는 모터스포츠를 통해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 외에 모터스포츠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송지오씨

◆무송지오씨, 210억 규모 투자유치 합의



무송지오씨(박인철 대표이사)는 엘론자산운용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송지오씨는 투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포르투갈, 미국 등 원자재구입과 설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금은 다음달부터 5월까지 50억원, 나머지 160억원은 9월까지 회사에 입금될 예정이다. 조달 자금은 원재료 구입 및 연구 개발,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무송지오씨(박인철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유치로 회사의 운영 자금은 마련했다. 추가적으로 자금 확보를 통한 경영 안정성 및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무진서비스

◆최은모 무진서비스 대표, 광주전남기업협의회장 취임



(주)무진서비스(최은모 대표이사)가 28일 제11대 광주전남기업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광주전남 기업협의회는 매월 회원간 정례 모임, 분·반기 별로 업종별 협의회나 무역 현안에 관한 CEO포럼을 개최해 선후배 기업인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출 진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할 예정이며 회원사 현장 방문, 정부 및 지자체 등과 소통 채널을 통해

무역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주)무진서비스(최은모 대표이사)는 "회원 무역인들간 네트워크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광주·전남 무역인들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해양조

◆보해양조, 설빙 흑임자 순희 막걸리 출시...MZ 입맛 공략



보해양조(임지선 대표이사)는 '설빙 흑임자 순희(750ml/5도)' 막걸리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저트 카페 '설빙'과 협업을 통해 출시했으며 지난해 4월 선보인 '설빙 인절미 순희'의 후속 제품이다. 설빙의 흑임자에 100% 우리 쌀 순희 막걸리를 섞었다. 막걸리 특유의 텁텁함을 줄이고 깔끔함에다 흑임자의 맛과 향을 더했다. 12개월간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보해양조(임지선 대표이사)는 "설빙 흑임자 순희는 단순히 재미를 위한 협업을 넘어 각 브랜드가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는 제품 간의 만남으로 탄생했다"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맛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협력업체, '안전문화 실천' 맞손



광주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29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대교육장에서 사망사고 없는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모기업-협력업체 합동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등 협력업체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협력업체는 자율안전점검,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남산단

◆광주국세청, 하남산단 현장소통 "다각적 세정지원"



광주지방국세청은 28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2층 소회의실에서 입주기업 대표 등 10여명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며 "기업 현장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세정에 적극 반영해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산단관리공단 (박홍석 이사장)은 "광주국세청이 현장소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제1598회 금요조찬포럼〉

· 강사 : 문달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주제 :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무엇이 다른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제품혁신과 전략혁신방법과 제품혁신만 추구하다 실패한 기업, 제품혁신과 전략혁신을 동시에 실행하여 성장한 기업을 사례로 들며 강연을 진행하였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초 CES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과거에는 삼성이나 LG 가전회사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최근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이 과거 제조업에서 최첨단 IT 산업으로 변하고 애플, 소니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기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Bain&Company에서 1,450개 기업을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가장 성공한 기업의 특징은 양손잡이 전략을 취합니다. 양손잡이 전략이란 제품혁신과, 전략혁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전략혁신에 성공한 기업 중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점의 가장 큰 문제인 대여하고 기간 내 반납이 안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대여하는 방법을 변경합니다. 세 가지 타입으로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구독정제를 만듭니다. 3만원 3개, 5만원은 5개, 10만원은 10개로 만들어 놓게 되니깐 회전율이 올라갑니다. 그 결과, 당시 미국의 비디오대여점 1위 업체와 2005년도에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섭니다. 양손잡이 전략을 실패한 기업으로는 노키아가 있습니다. 노키아는 어떤 기업보다 혁신을 열심히 했던 기업으로 2천년대 중반까지 스마트폰의 최강자였습니다. 핸드폰을 더 싸게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제품혁신만 고집하다 전략혁신을 하지 못해 망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반드시 더 나은 제품을 보유하거나 시장에 고품질의 제품을 내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략혁신의 방법 첫째, 우리 고객이 뭐가 불편할까를 생각하고 불편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전에 짜장면을 시키려면 냉장고에 붙어있는 중국집 번호를 확인해서 주문해야 하고 없으면 전단을 찾아서 주문해야 했습니다. 그 불편함을 배달의민족이 한꺼번에 해결해버렸습니다. 둘째, 비전을 슬로건화 하라 어떤 기업이 되고자 하는가를 말하고 직원들이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2020년 CES에서 제조업 기업이 아니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선언하고, 외부에도 현대자동차그룹이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니다 선언함과 동시에 내부 직원들에게도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CEO의 한마디가 외부, 내부에서 바라보는 회사를 변하게 만듭니다.

요즘 동해에서 명태가 사라졌습니다. 명태가 사라진 원인은 기후가 변하고, 조류가 바뀌니까(자동차 제조방식) 어종이 바뀝니다(고객의 기호) 이제는 명태가 안 잡히고, 오징어가 잡힙니다. 어종이 바뀌면 고기 잡는 방법(기업 경영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단기적 위기 극복방안을 넘어 위기 속 기회를 찾기 위해 기업 혁신 전략을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모든 성공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는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전략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서 성공적인 경영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활용 촉진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동참 권고

- 경총,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영계 권고」 발표 -

□ 3일 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국내 여행 장려 등을 통해 내수 진작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 경총은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해 지역 상권, 영세·소상공인들과 관광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내수를 촉진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17년 이후 6년 만에 기업들에게 내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는 권고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 권고안 주요내용 (첨부자료 참조) >

- ① **(연차휴가 적극 활용 권장)** 경총은 기업들이 여건에 맞춰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연차휴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지역축제·이벤트 일정 등을 사내에 홍보토록 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국내 여행이나 지역 소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업무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최소화하여 근로자들이 일과 직장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여가 생활을 통해 내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 ② **(사내 행사의 국내 개최 장려)** 경총은 기업이 실시하는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세미나 같은 각종 행사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가급적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③ **(국내 관광 및 숙박 상품권 등 지원)** 또한 개별기업 여건에 따라 노사 협의를 통해 휴가비 일부를 국내 숙박시설 이용권, 지역 관광 상품권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국내 관광 촉진에 기여해 줄 것을 권고했다.

- ④ **(내수 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 노력)** 이외에도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앞으로도 내수 진작에 우리 기업들이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영계 권고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에 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마저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서, 특히 지역 상권, 영세 소상공인들과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렇듯 내수 경기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출 제고 노력과 함께 내수 촉진을 통해 어려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29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총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기업은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적극 활용하여 휴무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러한 휴가가 국내여행 활성화와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적극 지원한다.

-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이벤트를 사내에 적극 홍보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활용이 국내 여행 활성화와 지역소비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업무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최소화하여 근로자들이 일과 직장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여가 생활을 통해 내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기업이 실시하는 연수·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세미나 등 각종 행사들은 가급적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반드시 해외 개최가 필요한 행사를 제외하고 각종 행사, 교육연수는 가급적 국내에서 진행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내수가 진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개별기업의 여건에 따라 하계휴가, 명절 연휴 등에 국내 관광 및 숙박 상품권 등의 지급을 통해 국내 관광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기업 여건에 따라 노사협의를 통해 휴가비 일부를 국내 숙박시설 이용권, 지역 관광 상품권 등 현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내 관광 촉진에 기여한다.
4. 이외에도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